

# 통일을 대비한 북한 농업교육의 체제에 관한 연구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 A Study on the Agricultural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for Unification

Chyul-Young Jyung

Dept. of Agricultur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적 요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농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졌으며, 북한의 농업교육 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북한 농업교육의 특징과 문제점분석을 통한 통일에 대비한 선결과제와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농업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고찰, 귀순자 및 북한교육 전문가와의 면접 및 전문가 협의회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일반 교육체제를 살펴보고, 북한의 농업교육 체제를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구분하여 해당 교육기관들을 구분하고, 각 농업교육기관들의 운영실태와 교육여건 및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농업교육의 선결과제들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농촌지도의 측면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들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에 따라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제언으로서 농업과 농동을 중요시하는 농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양농업교육 차원에서 남북한 농업관련 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북의 통일에 대비한 농업인력 수급전망 및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이 북한의 산업체 부설형 농업교육기관에 대한 대응방안과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북한농업전문가를 양성하여 통일에 대비케 하여야 한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북한 사회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탈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북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문제는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붕괴, 농지의 유실로 인한 농지 감소 현상 등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주체농법이라 불리는 농업경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 낙후된 농업기술, 전문농업인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들어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농자재를 지원받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분조관리제의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여 왔다(김성훈, 1999; 부경생, 1999).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북한 농업경영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스

럽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농자재의 지원, 농업기술 지원, 농업전문가 파견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체제의 이해와 이러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력의 양성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접근 방법에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과 북한의 농업교육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농업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단지 현재 농업 분야에 대한 일반적 실태 연구(김수욱·박은희, 1998; 김운근, 1996; 신동완, 1998)나 북한 교육의 일반적인 체제에 관한 연구(강선희, 1993; 김성재, 1993; 김정일 1993) 등에서 부분적이며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정규학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업교육에 대하여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농업교육을 학교농업교육과 사회농업교육, 교양농업교육과 직업농업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화를 위한 농업교육 체제와 정책, 방법, 사회제도 부문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과 이들을 지원하는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구조를 함께 고찰하고, 이들을 기초로 통일을 대비한 농업교육의 대응방안과 통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농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농업교육의 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북한 농업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및 통일에 대비한 선결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통일에 대비한 농업교육의 대응방안과 통합안을 제시한다.

## 3. 용어의 정의

농업교육: 농업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과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 그리고 정규 학교교육에서의 농업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농업교육 모두를 포함한다.

## 4. 연구의 방법

연구 목적을 위하여 문헌 고찰, 귀순자 및 북한교육 전문가와의 전화·서신을 통한 조사와 면접을 사용하였다. 문헌 고찰은 북한의 농업 및 교육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 통일원 등의 관련 기관에서의 자료, 각종 관련 서적 및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농업교육 실태를 교양교육, 직업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각 단계에 따라 세부 항목을 선정하여 실태를 정리하되, 미진한 부분은 귀순자나 국내외 북한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게 전화나 서신에 의한 조사 또는 방문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연구 목적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의 자문협의회를 갖고, 장·단기 대책을 수립,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취하여야 할 농업교육 방안을 제언하였다.

## 5. 연구의 제한

북한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북한 원문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기존의 연구물들과 도서들을 고찰하고 몇몇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는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 내용의 깊이와 포괄성에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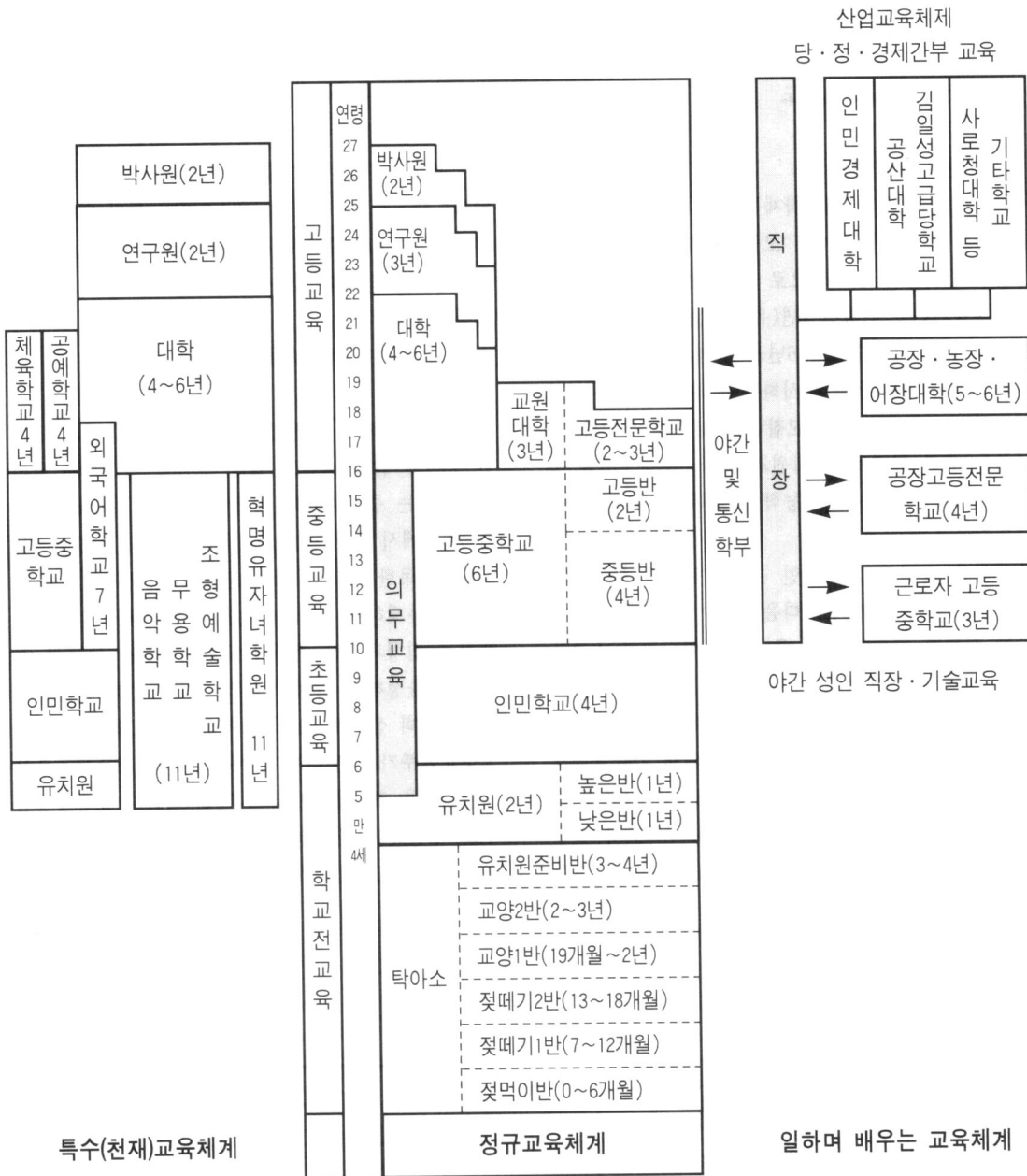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교육제도

자료 :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김동규(1999). 북한학 총론.

## II. 북한의 농업교육체제

### 1. 북한의 농업교육제도

#### 가. 북한의 교육제도

북한 정규교육의 기본학제는 그림 1과 같이 4-6-4(6)체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 4년, 고등 2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다. 1974년부터 의무교육기간을 취학전 1년(유치원 높은반: 5세),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쳐 모두 11년체로 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북한에는 일반 학교와는 별도로 특수학교집단이 있는데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혁명유자녀학원과 음악·무용·체육 등의 특기자가 다니는 예체능학교, 과학영재학교인 제1 고등중학교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기본적인 교육제도상의 특징들을 김동규(1999)는 15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① 취학전 교육의 발달 ② 자연부락단위의 소규모 초등교육기관의 발달 ③ 예체능계의 조기교육 기관의 발달 ④ 사상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발달(김일성 고급당학교, 금성정치대학) ⑤ 산업별 기술교육체제의 발달(1956경부터) ⑥ 각종의 조직과 집회를 통한 사회교육의 발달 ⑦ 1986년부터 각 시도에 〇〇〇제1고등중학교라는 이름의 천재교육기관의 설립 ⑧ 제1학기(4. 1~8. 31) 제2학기(9. 1~3. 31) ⑨ 김형

직 사범대학(5년제), 일반사범대학(4년제), 교원대(3년제) ⑩ 종합대학(김일성대학, 김책공대, 고려 성균관대) ⑪ 일하면서 배우는(이론과 실천의 결합원리) 성인 고등교육기관의 발달(공장 고등전문학교, 공장·농장·어장 대학) ⑫ 이공계대학(약 70%)의 발달 ⑬ 초·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의 원칙 ⑭ 1990년대 들어 10개의 중심대학의 설치 ⑮ 각급학교 명칭의 김일성가계 인명화(김정숙 유치원, 김일성대, 김형직 사범대 등)

또한, 북한 교육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북한의 전반적 교육체계는 노동당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을 관장하는 당의 전담부서는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과학교육부이다. 이곳에서 주요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한다. 각 도당과 군당도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을 통제하며, 각급 학교를 직접 지휘·감독한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 교육위원회는 당에서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산하에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다. 고등교육부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보통교육부가 교원대학을 포함한 그 밖의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교육위원회 관할하에 두지 않고 정무원에서 직접 관장한다.

표 1. 북한의 교육 현황

구 분	학 교 수	학 생 수	교 사 수	비 고
탁 아 소	약 36,000개	-	-	1990년도 기준
유 치 원	약 24,000개	140만명	35,000명	"
인민학교	4,813개	188만명	-	1996년도 기준
고등중학교	4,842개	291만명	-	"
고등전문학교	470개	-	-	"
대 학 교	286개	31만명	-	각종학교 포함
각종학교		공장대학(80), 농장대학(12), 어장대학(1)		

자료 : 김동규(1999), 북한학 총론.

나. 북한의 농업교육 체제

북한의 농업교육은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다음 표 2와 같이 학교교육/사회교육과 교양교육/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기관 중에서 교양농업교육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및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며, 직업농업교육은 농업계 고등전문학교와 농학계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교육기관 중에서 교양농업교육은 야간방송통신대학과 각종 사회단체활동(대표적 예: 농업근로자 동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직업농업교육은 농장 고등중학교, 농장 고등전문학교, 농장대학과 같은 산업체부설 교육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북한 농업교육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교육내용으로는 주체농법이 있다. 주체농법은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현대적·집약적인 농사법을 말한다. 이는 경지면적의 확대와 과학적·집약적 영농기술의 보급을 통하여 농산물의 양적인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농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임상철 외, 1996).

첫째, 농촌에서 기술혁명,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협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조하여 경제 부문의 선도적인 공업이 농업을 도와야 농업이 공업과 같은 현대적 기술을 갖추어 나갈 수 있으며 앞서가는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 낙후된 농촌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

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운영방법을 공업적인 기업 관리 방법으로 개선한다.

북한의 아이들은 이러한 김일성의 주체사상, 주체농법, 김일성의 어록 등을 유아원 시절부터 듣고 자라며 암기하도록 교육받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교양농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교육기관에서의 농업교육

학교교육기관에서의 농업교육은 유치원·탁아소,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관련 교육들을 말한다. 이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교육의 내용 수준에 따라 교양농업교육과 직업농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교육기관에서의 교양농업교육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양농업교육의 형태는 유치원·탁아소의 활동, 인민학교·고등중학교·고등전문학교·대학교에서의 의무노동시간, 고등중학교의 실습과목을 들 수 있다.

1) 유치원·탁아소의 나무에 물주기, 꽃심기 등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려서부터 김일성 부자에 대한 찬양과 충성심을 가르치는 한편 실생활에 관련된 교육을 위주로 하며 실천과 노동을 중요시 여긴다. 이러한 유치원의 교육방법으로 감화식, 문답식, 실물수업, 해설과 설복, 모범 등의 방법이 사용

표 2. 북한의 농업교육체제

구분	교양 교육	직업 교육
학교교육	· 유치원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 · 일반대학	· 농학계 대학 · 농업계 고등전문학교
사회교육	· 농업근로자 동맹 · 야간 · 방송 통신대학	· 농장고등전문학교 · 농장대학 · 협동농장 내 현지교육훈련

되며, 놀이에서도 운동유희, 창조유희, 교수유희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시키고 있다(김동규, 1990). 탁아소와 유치원 단계의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중요시하고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고 농업과 생산에 대한 이해를 깨우치게 하고 있다.

2)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 · 고등전문학교 · 대학교의 의무노동제도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노동과 실천이 결합된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 생산노동이 결합된 현장에서의 노동활동들을 강조하여 왔다. 표 3과 같이 인민학교 학생들은 연간 5주, 고등중학생은 연간 8주, 대학생은 연간 10주 이상 의무적으로 사회노동을 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공업노동 4주간, 건설노동 4주간, 농업노동 2주간으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노동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다. 농업노동으로 모내기, 가을철에 벼베기 노력지원 등을 하는데 학생들의 노동량은 부과된 계획량의 200퍼센트 이상의 초과달성을 요구하고 있어 보통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거나 철야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북한연구소, 1983).

3) 고등중학교의 실습과목

북한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에서는 일반 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시키며 전문분야의 현대 과학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아준다. 고등중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기초기술교육으로 여학생실습과 공작실습, 전자공학 기초 그리고 제도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실습은 또한 학교의 지리적 위치나 여건에 따라 공업관련과목을 배우기도 하고, 농업관련과목이나 광업, 수산업 등의 과목들을 배우게 된다.

북한의 교육은 남한과 달리 기초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생산기술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고등중학교를 졸업 후 바로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노동활동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습을 철저히 시킨다. 고등중학교에서는 그 교육과정에 실습과 제도를 1년에 약 500시간 정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나.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직업농업교육

북한에서 직업농업교육을 담당하는 정규교육기관으로 농학계 대학과 농업관련 고등전문학교를 들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그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기에 직업교육차원의 농업교육기관에서 빠질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중등교육차원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존재

표 3. 북한 학생들의 의무노동기간(1982년 당시)

학 교	노동기간	내 용	작 업 양 상
인민학교	2~4주	필요에 따라 수시 동원 소년단 조직을 통해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원: 모심기, 제초작업, 관수사업, 추수</li> <li>· 경제건설: 도시건설, 발전소, 철도부설, 기계제작, 탄광건설장 지원</li> <li>· 좋은 일하기 운동: 나무심기, 토끼기르기, 외화벌이 운동(각종 수집)</li> <li>· 각종 선전대 활동: 당정책 선전대, 과학선전대, 학술선전대, 위생선전대</li> <li>· 자연개조사업: 발관개건설, 토지정리 및 개선, 다락밭건설, 치산치수사업, 간척지개간</li> </ul>
고등중학교	4~8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연맹 (김사청)을 통해 동원	
고등전문학교	10주		
대학교	12주	졸업반은 실습으로 총당 인문계 12주 기술계 14주	

※ 자료 :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하지 않는다.

1) 농업고등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

집하는 2~3년제의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종합대학 등 일반대학 못지

표 4. 북한 농학계 대학의 현황

대 학 명	위치(설립년도)	수업연한/ 학생수	설치된 학부명	석·박사 과정
<b>중앙대학</b>				
원산농업대학	강원 원산(1948)	5/3,000	농학, 농기계학, 농업경영학, 과수학, 양잠학, 농화학, 농생물학, 관개공학	석·박사
평양농업대학	평양시(1981)	5/2,500	농학, 농업기계학, 수의축산학, 대외과견학	---
량강대학 <sup>1)</sup>	량강 혜산(1948)	5/2,000	농학, 경영학, 산림공학, 목재가공, 임업학, 기계학, 자동화학	석·박사
평성 수의축산대학	평남 평성(1955)	6/2,500	수의학, 축산학	석·박사
북청 과수단과대학	함남 북청(-)	4/1,000	묘목학, 과수학, 가공학, 기계학	---
<b>지방대학</b>				
계응상대학 <sup>2)</sup>	황북 사리원(1959)	5/1,500	농학, 생물학, 농화학, 농업경영학, 과수학, 삼림/하천보호학, 농기계학	석·박사
금야대학 <sup>3)</sup>	함남 함흥(1958)	5/1,500	농학, 과수학, 농기계학	석·박사
김제원대학 <sup>4)</sup>	황남 해주(1960)	5/1,500	농학, 과수학, 농기계학, 농경제학	석·박사
만풍대학 <sup>5)</sup>	평북 신의주(1969)	5/2,000	농학, 과수학, 농기계학	석사
남포대학 <sup>6)</sup>	남포시(1967)	---	농학, 원예학, 농기계학	석사
자강대학 <sup>7)</sup>	자강도 강계(1970)	---	농학, 잠업학, 농기계학	석사
함북대학 <sup>8)</sup>	함북 청진(1970)	---	농학, 과수학, 농기계학	석사

그 외에도 순천수의축산대학, 선봉농업대학, 숙천농업단과대학, 정주농업단과대학, 재령간석지단과대학, 갑산농업전문대학, 대관농업전문대학, 서흥농업전문대학, 평양남새전문학교, 평양양정전문학교 등이 있다.

주 : 1) 혜산임업대학이 1959년 혜산농림대학으로, 1990년도에 다시 량강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농학부에는 수의학, 축산학 및 임학분야가 포함됨.

2) 사리원농대가 1991년도에 누에유전학자의 이름을 따서 계응상대학으로 개명.

3) 함흥농업대학이 개칭된 금야대학의 농학부는 수의학과 축산학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4) 해주농업대학의 이름이 바뀐 대학으로 농학부에는 수의학, 축산학 및 임학 등이 포함됨.

5) 신의주농업대학이 개명된 만풍대학 농학부에는 수의학과 축산학이 포함됨.

6) 남포농업대학이 남포대학으로 개칭되었음.

7) 강계농업대학이 개칭된 자강대학의 농학부에는 수의학, 축산학 및 임학이 포함됨.

8) 함북농업대학이 개칭된 농학부에는 수의학과 축산학분야가 포함됨.

자료 : 부경생(1999),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않게 희망한다고 한다(통일교육원, 1999).

고등전문학교는 소규모로 설치되기 때문에 학교 설치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요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 명의 본과생을 양성하는 경비로 3, 4명의 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등전문학교 중에서 농업관련 고등전문학교에는 농업, 임업, 농기계, 관개, 수의, 축산, 산림, 잡업, 식료 등의 농업고등전문학교들이 있으며, 최근 경향으로는 그 기능이 발달하고 전문화된 농업고등전문학교들은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개편되는 경향이다(북한연구소, 1983).

## 2) 농업계 대학

북한의 농학계 대학들은 표 4와 같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위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으로 신입생선발과 졸업생배치를 전국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국한하여 하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중앙대학에 들어가는 대학들은 원산대학(농학을 전반적으로 다룸), 평양농업대학(평양지역에 농과대학 없어서 1981년 늦게 정책적으로 신설), 량강대학(임학을 중심으로 다룸), 평성수의 축산대학(축산과 수의학을 중점적으로 다룸), 북청과수 단과대학(대학원 과정이 없이 과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강의들 강조) 들이다. 이들 농학계 대학들은 김일성 종합대학과 원산농업대학을 모체로 하여 북한의 각 시도마다 하나씩의 농과대학들이 설립되었는데, 일부는 농업과학, 수의축산, 또는 임업과학만 다루고 일부는 두 가지 또는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즉, 각도의 농과대학은 육종, 채소, 과수, 축산, 양잠, 농경제, 식물보호, 토양학, 농기계, 농화학, 토지개발, 농경영 등의 분야에서 기술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수의학대학, 축산대학, 수리학대학 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각 도에 위치한 농업대학들은 그 지역에 맞는 주체농법을 연구하여 지도하게 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이수기간은 보통 5년이고 수의학 분야는 6년, 고등전문학교와 교원대학은 3~4년간 수학한다. 한 학부 내에서는 학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강의는 모두 같은 것을 듣게 되고 다만 졸업논문만 소속된 학과

에 따라 달라진다(부경생, 1999).

이러한 농업관련 대학들의 최근 동향으로 농업대학들의 이름이 많이 바뀌어 그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명칭변경의 큰 경향은 도시이름을 벗어나 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거나 농업이란 이름을 아예 대학명칭에서 삭제하는 경우들이다(부경생·방경호, 1998). 농업대학은 농업과학 및 기술발전에서 생겨나는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위한 부속연구소와 실험포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실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협동농장마다 실험포장을 갖고 있으며 각 협동농장에는 농업기술자가 50명 정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중앙, 도, 군 협동농장 단위로 주체농법 과정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사상교육을 겸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오봉국, 1991).

## 3.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농업교육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주요한 특성으로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근로자들은 정규 학교 교육 체계의 규모와 교육 기간의 제한성 등으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 내에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게 배우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업 전문의 정규 학교 체제가 아닌 대안적인 직업·학업 병행 가능 교육 체제가 구안될 필요가 있음을 동 제도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한만길, 1997a).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농업교육을 교양농업교육과 직업농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양농업교육

교양농업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에는 야간·방송통신대학과 조선농업근로자 동맹이 있다.

#### 1) 야간·방송통신대학

대학의 통신학부는 통신 매체를 활용하면서 출석



수업을 통하여 교육과정은 운영되고 있다. 통신학부는 라디오 등의 통신 매체를 주로 이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야학식 학습반 운영, 출석 수업, 일요학습반 운영 등 학생들이 출석 가능한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통신학부의 수업년한은 5년으로 되어 있다. 1년의 수업 기간 중에서 10개월은 통신수단을 통해 교육을 받고 2개월은 학교에 출석하여 교육과 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된다. 통신학부에 재학하는 직장인들은 통신교육에 따른 제반 편의를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교육비와 여비도 해당 직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한만길, 1997b).

방송통신교육의 사례로 1990년에 협동농장 농장원 34명이 함흥농업대학의 통신현지학습반을 졸업하여 농학기사 자격을 받았으며, 이 농장에서는 관리일꾼의 100%, 청년작업반원의 50%가 기사, 준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한만길, 1997b).

2) 조선 농업 근로자동맹

조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1945년 12월 8일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인 '전국농민조합연맹'의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여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개칭 조직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농근맹의 임무는 ① 청년동맹 맹원이 아니거나 비당원인 농민들에 대한 당의 유일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② 사회주의 농촌경리 발전의 촉진, 즉 농민들을 농업생산과 기타 노역에 적극 동원시키며, ③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근맹 역시 우리의 농협이나 여타 국가들의 농민 단체들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농민들을 조직에 묶어 놓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하며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 선동하기 위해 노동당이 만들어놓은 어용단체이다(정유진, 1999).

이러한 농근맹 단체들과 같은 사회단체의 활동들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농업정책 및 기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직업농업교육

직업농업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에는 농장고등전문학교, 농장대학, 협동농장 기술보급소가 있다.

1) 농장 고등전문학교

근로자 고등전문학교들은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설치된 일하면서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 기술교육기관이라고 북한의 백과전서에서 설명하였다. 3년제이며 준기사를 양성한다. 이러한 교육체제는 김일성의 발기에 의하여 1960년 9월에 공장 고등전문학교가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고등전문학교는 북한의 주요 생산기지마다에 세워져 있고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이 있는 곳에서는 이 대학에 병설되어 있다. 이 학교의 교육내용과 수준은 일반 고등전문학교와 같으며 교수교양사업의 조직과 관리운영은 공장·농장·어장대학과 같다(김동규, 1990).

2) 농장대학

농장대학은 북한의 사회교육기관 중에서 직업농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1996년 현재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또는 농장대학에 약 12개의 농장대학들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체 부설형 농장대학은 계속 증가추세이다.

농장대학의 편제는 본 학부와 예비과 및 관리 일꾼 양성반 등으로 나뉜다. 본 학부와 예비과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지망학과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관리 일꾼 양성반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공장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농장대학의 교육내용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을 비롯한 사상무장 강화를 위한 정치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나,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론과 실천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농장대학은 수업을 학생들의 작업교대에 따라 주·야로 나누어 2부제로 운영하며, 수업일수는 본 학부와 예비과는 주 5일, 관리 일꾼 양성반은 주 4일로 되어 있고 1일 강의는 90분씩 4회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농번기에는 과제학습으로 수업을 대신하고, 작업이 비교적 적은 농한기에는 집중적으로 시간표

에 따라 영농기술관련의 이론을 배운다. 세부 교육내용으로는 농축산, 농기계, 과수, 채소학이 있다(김동규, 1999).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지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장대학은 공장대학에 비하여 그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농장대학은 특성상 한 협동농장이나 농과대학 안에 부설되게 되는데, 그러할 경우 농장대학에 다닐 수 있는 농민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로 국한된다. 자유복합인과의 면접 결과,<sup>1)</sup> 많은 농장대학들이 그 교육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농민들이 원거리에서 통학하며 농장대학에 다니게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노동으로 피곤하여 농민들의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협동농장내의 현지교육

산업현장, 즉 협동농장에서의 교육은 북한에서 매우 중요시 여겨지고 있으며, 주말학습과 일과 후 학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협동농장 기술보급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들은 대부분이 사상교육이지만 산업현장의 기술교육과 문화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당에 의해 조직되고 주도되며, 대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교육활동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협동농장이나 농기계 공장 등과 같은 생산현장에서는 그 기술수준에 따라 기사와 기사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술지도체계가 존재하여 자체적인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현장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육방법은 방식상학이다. 이는 중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기술자들이 새로운 농법이나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였을 때, 농민들에게까지 전달하는 방법이다. 가을이나 농사시작 전에 중앙의 연구원들은 각 도의 지도원, 검사원, 기술자 등을 불러모아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각 지도원, 검사원, 기술자들은 다시 군으로 돌아가 군의 지도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군의 지도원들은 협동농장으로 돌아가 작업반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며 작업반장들은 현장 농민들에게 교육한다. 이러한 농업교육은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농업교육이며 실제적인 농민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4. 북한의 농업관리 · 농업경영지도 및 농업기술보급

북한 농촌지도체계의 큰 특징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수직적인 농업지도체제이다. 북한은 1952년 12월의 행정개혁을 통하여 “면”을 없애고 “리”를 대형화시키며 협동농장도 “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다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경영관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1961년 평안남도 소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로 1962년에 전국에 걸친 농업지도체제를 구축하였는데(김유섭, 1996), 이는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농업지도체제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통일된 전문농업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능이 분명하여 모든 농업기술 수단과 기술역량을 관장할 수 있어 농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일괄적으로 통일된 기능 속에서 지도 관리할 수 있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관리방법은 기업식 관리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의 계획화와 조직화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식 경영관리방법은 농업생산의 경영관리 과정 중, 계획의 제정에서 시작하여 생산의 조직, 기술의 발전, 재료의 공급, 노동력의 분배 및 기업의 재무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농업관리방법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의 강화와 농업의 경영관리의 계획화와 조직화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그 기능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농업생산도 공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농업이 현대화할수록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농업에 대한 직원의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업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농업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농장은 매년 체험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중등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 농장원을 선발하여 농업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학습하게 하고, 각 ·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모두 자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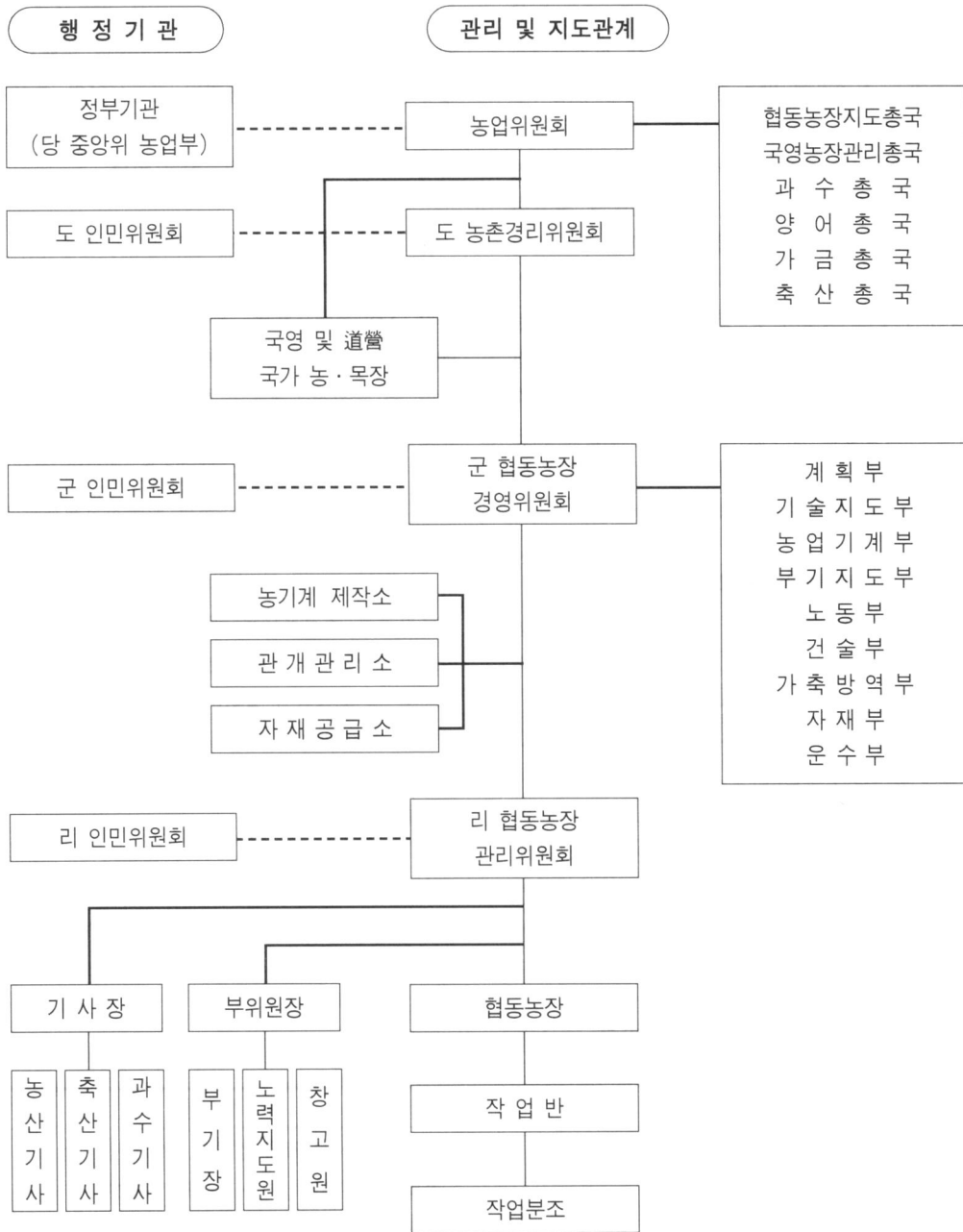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농업관리 및 농업경영지도체계

자료 : 신동완(1998), 북한의 농업기술.

농업전문학교와 농업기술훈련반을 두도록 하여 농업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토록 하였으며, 각 협동농장은 기술훈련반을 설치하여 많은 농장원들에게 농업과학 기술과 경영관리의 지식을 보급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정부기관과 대학소속 연구기관에서 농업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의 농업연구조직을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북한은 정부주도의 일괄적 연구체제가 정립되어 연구의 역량이 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남한의 연구조직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민간차원의 연구기관들이 다양하게 관련연구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구의 중복이 심하고 관련연구기관들간의 상호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III. 북한농업교육의 특징 및 통일을 대비한 선결과제

#### 1. 북한 농업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 가. 농업 중요성의 보편화

북한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어린이들도 알고 있으며 기본적인 농사일을 할 줄 안다. 이러한 보편화된 농업지식들은 그들의 생존문제이며 북한사회의 당면문제가 식량공급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농민의 해방이 그들 공산주의의 철학사상이며 주체사상에서 출발한 김일성의 주체농법이 북한농업의 중심이 되어 모든 협동농장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은 북한 농업의 위치와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나. 농촌의 행정 및 농업지도 체제의 일원화

북한의 농촌 행정 및 관리조직은 농촌지도조직과 통합·단일화됨으로써, 농업지도체제는 중앙에서 지방에까지 통일된 전문 농업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농업지도체제는 각 부서별 기능이 분명하며 모든 농업기술 수단과 기술역량을 관장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기업적으로 통일된 기능 속에서 지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지도체계가 군 단위별로 군 경영위원회의 총농예사에서부터, 협동농장의 농예사, 작업반의 기술원, 조의 기술지식보급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의 정책을 비롯하여 새로운 농업기술과 신품종의 전파에 효과적으로 그 조직력이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관리 방법은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의 강화와 농업의 경영관리의 계획화와 조직화를 강화하는 기능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 다. 계획적 산업인력 양성체제

북한의 인력수급정책은 노동당의 정부원에서 노동

표 5. 남북한 농업부문 연구조직 비교

구분	남한	북한
정부 소속 연구 조직	· 농촌진흥청 : 13개 연구소, 9개 도원 · 연구원: 2,105명 · 지도원: 6,843명	· 농업과학연구원: 36개 연구소, 5개 분원, 도농업과학연구소 · 연구원: 5,000명 · 지도원은 중앙, 도 군 행정부서에 소속
대학	· 종합대학: 21개 교수: 1,553명 · 단과대학: 41개 · 전문대학: 9개	· 원산농대 등 15개 종합대 · 정주농대 등 3개 단과대 · 서흥농대 등 2개 전문대 · 작목별 전문학교 다수
민간	· 종교회사, 농약비료회사, 농자제회사 소속 연구소	· 과학원 소속연구소에서 연구 · 민간연구소는 없음

자료 : 김영상 · 이은웅(1996), 남북한의 농업기술 비교와 농업협력 전망

당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급이 필요한 인력들을 매년 계획하고 일선 학교에서 그 수를 조정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의 대학들은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그 기능을 나누어볼 때, 중앙대학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인력양성기관이며 지방대학들은 도나 군 단위의 산업인력양성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각 도나 군에도 도 단위 협동농장이나 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각 도의 대학들에서 충당하고 군 단위의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산업인력들을 군 단위의 고등전문학교나 단과대학 등에서 소급해간다. 또한 각 도나 군별로 계획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기에 다른 도로의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학간 편입이나 진출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 라. 특성화된 전문교육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출신성분이나 그 능력이 인정받으면 특별한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들과 그들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특수계층들이 양성되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에서도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여 중앙대학들에는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며 우수한 인재들의 배치와 막대한 시설과 재정의 투자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된 전문교육들을 통하여 인텔리계층들을 양성하여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마.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발달

북한의 교육제도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발달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공장·농장·어장대학이며, 또한 산업현장에서 고등단계의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근로자 고등전문학교들이 공장이나 협동농장과 같은 산업체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배경은 전인민의 인텔리화라는 김일성의 정책과 연관되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노동생산력 향상을 통해 북한에 필요한 산업노동력을 얻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 바.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

북한의 일반교양교육들에서도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병행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단체조직생활에서도 각종 생산노동과 북한의 실생활에 필요한 고철수집이나 토끼 기르기와 같은 자원 수집 등의 일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교육사상에 근거를 두고 경험주의 학습방법을 주장하는 듯하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노동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습득하게 될 경험의 중요성도 간과 할 수는 없다. 페스탈로찌가 주장하였던 노작학습에서도 어린 시절에 생산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과 마음과 신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 2. 통일을 대비한 북한 농업교육의 선결 과제

북한 농업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한 선결과제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교육 측면

학교교육을 통한 농업교육을 크게 교양농업교육과 직업농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학교교육에서의 교양농업교육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의무노동제도의 문제점과 농업을 통한 교육의 부재를 안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도 농업의 중요성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나 교양농업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생명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이들의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교양농업교육 측면에서 북한의 농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무노동제도가 학생단체에 의한 농촌지원활동들과 같은 생산노동에의 강제적 투입은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농업교육은 주체농법의 북한식 농업만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측면이 소홀하게 되며 농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장점들이 무시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별 특성들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농업에 관한 내용들은 당의 정책선전과 김정일의 활동에 초점을 둔, 우상화 정책으로 이용된다. 김정일의 신년연설, 협동농장 순회, 새로운 농업정책 등이 주로 학생들에게 소개되어 지는데, 이를 통한 교양농업교육측면에서의 이점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직업농업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때, 북한의 농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북한의 직업농업교육은 전문농업교육기관이나 농업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한의 대학에 있는 농업교육학과들이 농업의 발달과 전문적인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헌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전문농업교육기관이나 농업교육학과의 부재는 직업교육차원에서 북한농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는 중등교육수준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다. 60년대에 기술의무교육의 교육과정에서 70년대 김일성 우상화 및 공산주의 강조의 교육과정 시기로 넘어가면서 중등단계에서 실업교육의 비중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북한의 직업교육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에 가야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북한의 교육기관들의 교육환경의 열악성이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문을 중점육성하기에 학생들의 교육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동일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기에 교육여건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나. 사회교육 측면

사회교육을 통한 농업교육을 크게 교양농업교육과 직업농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사회교육

에서의 교양농업교육 측면에서 볼 때, 북한농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농업교육의 내용이 당의 선전과 정책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남한의 교양농업교육이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국산농산물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농업의 현실적인 식량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양차원의 농업에 관한 교육내용들이 다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에서 교양 농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이 많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며,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과정에 조건이 까다롭다. 현실적으로 식량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교양농업교육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사회교육에서의 직업농업교육 측면에서 살펴볼 때, 북한의 농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농장대학의 운영상 농민들의 참여저조를 지적할 수 있다. 농업의 산업체 부설형 교육기관인 농장대학은 농번기에는 과제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농한기에 정해진 교육일정에 의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공장과 다른 협동농장에서는 한 교육장소로 이동하기에 교통의 불편을 들 수 있으며 시간적 소모와 육체적 피곤함 등으로 실제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농장대학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협동농장내의 기술자들로서, 반복되는 교육내용과 제한적인 교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협동농장이나 농학계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농장대학에 또한 농장 고등전문학교가 같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할 경우 농장대학과 농장 고등전문학교의 중복운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다. 농촌지도 측면

농촌지도측면에서 북한농업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단위의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조직이 기업적 조직을 이루고 있어 기술지도체제가 매우 잘 조직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그에 반하여 행정위원들의 비리를 문제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보급행정상의 공무원들이 농업자재들을 빼돌리는 것은 북한 사회에 만연한 비리현상이라고 하며 그러한 기술자들에 의한 기술지도도 현지의 농민들에게는 이미 식상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둘째, 상부기관들의 명령하달식 행정조직체제로 인하여 하부조직들의 불만이 해결되지 못하고 실제 현장의 농민들의 고충과 의견들이 상부기관으로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셋째, 국가주도의 획일화된 식량증산계획은 협동농장의 농민들에게는 식상한 요구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농민들은 협동농장의 식량증산보다는 자신들의 텃밭가꾸기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IV. 통일에 대비한 농업교육의 대응방안과 통합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한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농업교육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극복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통합론의 측면에서 농업교육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통일과는 다른 의미로, 통일이 제도적·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통합은 내용적·의식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통합은 부분들이 전체가 되는 것으로서 이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단위들이 통일성 있는 체계의 구성요소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은 상호 구분되는 실체들이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전체로 또는 표준화된 일관 체계의 특성을 지니는 사회·문화의 한 집합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한만길 외, 1997).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합론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한만길 외, 1997; 한만길 외, 1998; 한중하 외, 1994; 신세호 외, 1993; 최은수, 1993)을 중

합·분석하여, 남북한의 농업교육의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안은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3단계(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분되었다.

##### 1. 화해·협력단계

남한과 북한의 현 농업문제를 직시하고 상호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금강산관광과 나진항 개발 등의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병행하여 농업분야에서도 인도주의차원에서 비료공급과 농자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병행하여 농업교육차원에서 수행할 통합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농업기술과 주체농법을 인정하며 북한의 현 체제아래에서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한다. 현재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체제 밖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현 당면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북한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이모작과 감자농사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의 전환을 도와주는 등의 상호협력활동은 남북한이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여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 농업교육체제의 통합 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남한의 농업교육체제와 북한의 농업교육체제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합리적이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한민족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농업교육 체제안을 마련하고 실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남북한 농업교육 현실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차원에서 남한의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 농업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비방이 아닌 포용의 자세로 북한문제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과 일반 주민들이 겪게될 생활들을 가정하며, 합리적인 대처와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가 어떠한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교육분야에서도, 통일국

가에서 남북한 농업생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농업 분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북한의 산업체 부설형 농업교육기관들에 대한 남한의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농장대학과 농장 고등전문학교는 남한의 산업대학과는 상이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통합을 대비하여 이러한 농업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에 부응하는 체제를 갖추거나 상호 융합되거나 조정,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 통일시 남북한 농업인력의 수급의 전망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어 남북간에 농업인력의 교류가 가능해질 경우, 부족한 농업인력과 과잉 농업인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한국에서 예상되는 농업기술자, 농업기능인을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그에 따른 교육훈련체제가 준비되어야 하겠다.

## 2.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농업은 기술과 자원을 협력하여 남북한 농업통합을 대비하는 단계이며,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들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추진되어야 할 농업교육의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농업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 시점에서는, 남북의 지리적인 특성과 생산환경 등을 고려한 남북연합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다. 남한에서는 논농사 중심의 농업을 실시하고 북한에서는 밭농사 중심의 농업을 실시하여 상호 계약재배를 통하여 남북의 농업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생산체계에 의해 농업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비교적 자유로워지며, 상호간의 농업부문의 현실을 직시한 개선책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공동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남한과 북한의 생산작물에 대한 공동연구나 기술의 공유, 공동 세미나 활동들이 가능하며, 남북 농업교육제도의

차이점으로 각자 연구해온 내용들을 공유하여 통일 국가에 대비한 적절한 통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셋째, 농업 전문가의 왕래를 통한 농업기술의 상호 교류 및 지도활동이 가능하다. 남한의 농업전문가가 북한에 가서 남한의 농업기술을 교육한다거나, 농업기술을 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농업인력들이 남한에 와서 견학하며, 보다 체계적인 농업교육기반 하에서 농업기술 등을 습득해 갈 수도 있다. 농업전문가 뿐만 아니라 농업교육의 전문가와 프로그램 전문가, 성인교육의 전문가 등도 서로 왕래가 가능하여 북한의 프로그램개발이나, 성인활동에 대한 조언, 농업교육 체제 조정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북한 지역사회개발 전문가의 활동이 필요하다. 북한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촌주민들의 의식화 교육, 농촌사회교육활동 등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 수요가 대단히 많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남한의 인적자원으로 충당하기보다는 북한에서 훈련받은 지역사회개발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훈련을 위하여 남한의 전문가가 북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의 협동농장체제와 남한의 농업협동조합체제간의 상호 비교연구를 거친 통합 조정활동이 필요하다. 남북간 농촌지원 및 관리체제의 차이점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하에서의 기업식 관리방식과 남한의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시장경제 방식의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 농업교육의 통합과정에서 학생들이 남북한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 농업교육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남한의 대학과 북한의 대학들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교환학생을 보내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상호 교환적인 농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일곱째, 북한에 통일환경에 적합한 농업인력 개발기관의 설립을 모색하고 그 실시방안을 마련한다. 북한에 중등단계의 농업인력의 양성체제인 실업계 중등학교를 설립하고 북한의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기술들을 교육시키며, 북한농업전문 기능인



을 양성한다.

여덟째, 남북한 농촌지도체제의 통합안을 마련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들을 모색한다. 남한의 농촌지도사와 북한의 지도원이나 기사장들의 운영 및 지원체제 등을 연구한다.

### 3. 통일국가단계

남북통일이 실현되는 시점으로 통일헌법이 확정되고 통일정부와 통일국회가 구성되며, 남북협상에 의해 합의된 표준교육제도가 시행되며 남북 농업공동체가 구성되는 이 시기의 농업교육의 통합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농업개혁을 촉진한다. 남북통일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지리적 제한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북지역의 경지면적의 배가와 균형적인 논과 밭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또한 북한지역의 집단화·규모화된 협동농장에 남한의 자본과 시설, 기술, 고등인력들을 투자하여 북한의 농업 운영체제를 생력기계화 생산체제로 전환하면 생산비 절감의 효과와 자본집약적 영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협상에 의해 통일국가가 형성되어 단일 제도 하에서 운영되어지는 농업위원회와 통일 교육 제도 등이 적용되며, 통일 농업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농업기술의 보급, 농촌지도사업의 촉진, 농촌주민 생활개선, 농촌청소년에게 영농의식 교육 등의 활동들이 기대된다.

셋째, 남북 농업노동력의 합리적인 배분정책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농업인력 양성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조직적인 구조 속에서 관리와 지도가 일원화된 농업인력양성기관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노동력의 수요공급전망이 발표되고 그에 따른 농업기능인력들이 남한과 북한에 고루 배치되어 양성되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특화된 교육훈련들이 실시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북한의 농업교육체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차원에서의 교양농업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주체사상에 포함된 주체농법과,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노동제도, 그리고 고등중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실습과목들이 해당된다. 또한 학교교육차원에서의 직업농업교육은 농학계 대학과 농업계 고등전문학교들에서 시행되는 농업교육들이 있다. 사회교육차원의 교양농업교육에서는 지방 농업대학들에 부설되어 있는 야간·방송통신대학의 운영 및 농업근로자 동맹의 활동 등이 해당되고, 사회교육차원에서의 직업농업교육은 협동농장 내에서 실시되는 농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대학들이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북한 농업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생산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함께 자주 강조되며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어 북한의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인 농업지식들을 알고 있다. 농촌의 행정조직은 기업식 경영관리체제를 채택하여 농업 기술지도체제와 병행하여 조직되어 있어 일원화된 운영체제를 갖는다. 북한의 계획경제정책에 따라 농업대학들도 학교별로 계획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북한의 농업대학은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을 구분하여, 중앙대학에서 농업전문 인텔리 교육을 실시하며, 지방대학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맞는 대중 산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한다. 북한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인 산업체 부설형 교육기관들이 발달하였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며, 농장대학의 수는 10여 개에 달하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모든 학교의 교육방법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과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산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배우도록 강조한다. 이에 모든 학생들의 농촌지원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다.

북한 농업교육의 선결과제들로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노동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과 인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교육차원의 교양농업교육에서는 획일적인 주체농법만을 강조하며 식량증산만을 농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중등수준의 실업계고등학교들이 없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전문 농업교사 양성기관인 농업사범대학이 없다. 모든 직업교육은 고등전문학교와 대학교에서 실시되는데, 북한의 농학계 대학은 그 기능별로 양분되어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나뉘며, 그 운영 및 시설 등의 지원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방농업대학들은 지역특성에 따라 전문 대학들이 설립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시설투자가 적으며 산업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수준이 비교적 낮다. 그리고, 농장대학의 운영상에서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으며, 행정과 기술지도가 일원화된 농업관리체제로 인한 관리인들의 부정비리가 많다는 점들이 북한 농업교육의 과제들로 지적되며 통일을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현황과 식량난을 교양교육차원에서 널리 교육하고 북한의 농촌 지역사회개발 전문가들을 육성하며, 지속적인 남북한 농업교류가 있어야 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농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단계를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농업교육분야의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농업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전문화되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필수산업으로 보호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북한 통일을 기해 농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과 북한의 계획적 생산체제와 노동력들을 통합하여 세계 농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언

독일의 통일과정과 우리나라의 과정을 비교해보면

약 20년에서 30년의 격차가 있다고 한다. 통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산적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다. 통일을 위해 산적한 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해결해나감에, 동시에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지고, 지속적인 신뢰회복을 위한 교류협상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바로 통일을 여는 노력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농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제도적,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농업과 노동을 중요시하는 농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노동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교수학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체와 연계된 성인교육체제가 발달하였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노작경험을 통한 경험학습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아이들은 노작경험이 매우 부족하며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사회에 만연하다. 산업발달에 따라 농업인구의 감소가 마치 농업의 사양화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과 동일하게 농업과 노동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양농업교육 차원에서 남북한 농업관련 통일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비판과 오도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실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고 서로의 화해와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교육은 먼저 객관적이고 진실된 사실들을 가르쳐야 하며 상호비하나 진실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일반적인 사회상황들을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북한의 식량수급사정이나 농업기반 여건 등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남북의 통일에 대비한 농업인력 수급전망 및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시 남북한의 농업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어떤 수준의 인력이 부족하고 과잉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효율적인 교류사업을 벌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산업인력과 농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국가에서 조절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산업인력 수급 실태는 그 대응책이 미진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우선 남한에

서부터 농업인력의 분야별, 직종별 수급동향을 분석하고 조절하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하겠다.

넷째, 통일시 남한의 체제와 매우 상이한 산업체 부설형 농업교육기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은 산업체부설형 교육기관이 1950년대부터 존재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그 기능이 매우 특수하다. 사상교육과 현장교육을 겸하며, 저비용으로 국가계획에 따른 산업체 주도로 교육이 실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한에서도 기업체의 사내대학이나 사내훈련 등이 있으나 이는 기업의 영리적인 목표와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농장대학, 공장대학, 어장대학의 운영에 따른 남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시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11년 의무교육기간 동안에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며 계열분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시 남한의 실업계 고등학교체제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고등반의 체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인가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통일시 북한에는 농업교육연구 및 농업교사양성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남한 농업교육기관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농업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통일시 북한의 지역적 특성과 북한의 사회체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북한농업전문가가 북한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주

- 1) 이 연구에서 북한 농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1월에 자유북한인 이민복(전 북한농업연구소 연구원)과의 면접을 실시하였음.

## 참고문헌

1. 강선희(1993), 북한교육의 인간관과 교육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2.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3. 김동규(1999), 북한학 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4. 김성훈(1999), 새 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협력, 1999년 12월 1일 대산농촌문화재단 심포지엄 강연자료.
5. 김수욱·박은희(1998), "북한 식량공급 부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0(1): 73~96.
6. 김영상·이은웅(1996), "남북한의 농업기술비교와 농업협력 전망," 북한농업연구, 3: 1~12.
7. 김운근 외(1998), 통일대비 농업임부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김운근(1996),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 개황," 계간 북한연구, 7: 53~79.
9. 김유섭(1996), "북한 신농업의 지도체제와 경영관리의 특징," 북한농업연구, 3: 24~32.
10. 부경생(1999),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 '99 북한농업 심포지엄 발표자료, p. 28~75.
11. 부경생·방경호(1998), "농업과학에 관한 북한의 연구·교육조직 실상과 통일 후 통합/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농업연구, 5: 33~51.
12.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편.
13. 북한연구소(1999),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편.
14. 신동완 외(1998), 북한의 농업기술, 서울: 오성출판사.
15. 신동완(1998), 통일대비 생활개선사업 기반조성 방안, 농촌사회발전연구소.
16. 신세호 외(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7. 오봉국(1991), 북한의 농·임·축·수산 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현황분석,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
18. 이은영(1993), 북한 공장대학 연구: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19. 이은웅 외(1997), 남북한 농업기술 연구·지도

체제의 통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20. 임상철 외(1996), "북한주체농업의 실상과 농업 생산의 기술적 특성," 북한농업연구, 3: 52~69.
21. 정유진(1999), "북한 근로단체의 성격과 구성," 북한조사연구, 2(2) : 79~97.
22. 최은수(1993), "북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일에의 단계적 과제," 숭실대 사회과학 논문집, 23. : 271~299.
23. 통일교육원(1999), 북한문제의 이해-실태와 변화가능성-, 서울: 통일교육원.
24. 통일원(1995),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25. 한국교육개발원(1999),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6. 한만길 외(1997),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7. 한만길 외(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28. 한만길(1997a), 통일시대 북한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9. 한만길(1997b),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30. 한중하 외(1994),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31. 황병덕(1997),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32. 황정규 외(1990),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